

## “고향 마운드서 회초리...정신 번쩍”

광주일고 출신 KIA 심동섭, 한화 장민제·유창식... 무등야구장서 혹독한 경험

광주일고를 대표했던 젊은 에이스들이 성공을 꿈꾸며 한자리에 모였다.

3일 무등야구장 3루 덕아웃 통로는 광주일고 출신의 젊은 선수들의 수다로 부산했다. 과거한 몸장난까지 하며 사람들을 웃긴 이들은 심동섭(KIA), 장민제·유창식(이상 한화). 이들은 화정초와 광주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친구 같은 선우배사이다.

장민제가 프로 3년차로 가장 맏형이고 2010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좌완 심동섭이 2년차, 유창식은 올 시즌 7억원에 한화 유니폼을 입은 좌완 대형 투키다.

양팀의 기대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유창식은 어깨부상으로 5월이 되어서야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다. 하지만 3경기에 등판한 뒤 엔트리가 말소됐던 유창식은 2군에서 절치부심 실력을 쌓은 끝에 지난날 23일 재등록이 됐다.

허리 통증으로 코칭스태프의 예를 태웠던 심동섭은 특유의 포크볼과 과감한 피칭으로 KIA의 좌완 불펜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군 무대에 데뷔해 1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던 장



KIA 심동섭



한화 장민제



한화 유창식

민제는 올 시즌 한화의 선발 한축으로 급성장했다. 6월16일 KIA와의 대전 경기에 선발로 나와 5와 3분의 1이닝을 1자책(무실점)으로 막으며 프로 데뷔후 첫 선발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말 고향 무대에 모두 출격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두 좌완은 1일 경기에 나란히 등판했다. 유창식은 프로 무대 데뷔이후 고향에서 첫 등판이었던 이날 안치홍에게 투런포를 허용하는 등 1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1년 선배 심동섭은 강동우·김희성

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지만, 2일에는 1사 1·3루의 위기에 등판해 연속 안타를 맞는 등 부진했다.

맏형 장민제는 2일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위해 마운드에 올랐지만 4와 3분의 1이닝동안 이범호와 나지완에게 홈런 두 방을 맞으면서 4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팀은 11-7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장민제에게는 아쉬운 경기가 됐다.

3일 경기전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아구 못하더라”는 농담을 주고받으

며 반가운 재회를 했다.

장민제·유창식은 “늘 경기를 해던 곳이라서 무등경기장 마운드가 편하긴 하다. 특별한 부담감은 없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서 “고향에서 뛰지는 않지만 프로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심동섭은 “체력이 떨어져서 회초리를 맞은 것 같다. 끝까지 집중해서 올 시즌 1군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 열린 무에타이** 3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서구청장배 무에타이대회 2011 맥스파워 타이틀 매치 국제전 헤비급(85kg급) 경기에 출전한 김윤종(해성무에타이·오른쪽) 선수가 정태원(대경무에스클) 선수에게 펀치를 날리고 있다. 3라운드 최종경기결과 김윤종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화순고 파죽의 3연승

고교야구 주말리그, 동성고도 충주성심에 콜드승

화순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 기 광역리그에서 3연승을 달렸다.

화순고는 2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청주고와의 경기에서 7회 9-2 콜드게

임을 거두며 광역리그 3승째를 수확했다. 화순고는 1회부터 상대 선발 이해수의 난조로 볼넷 3개를 얻어내는 등 5점을 뽑아내면서 손쉽게 경기

를 풀어나갔다.

화순고 선발 이경훈은 사사구 없이 7회를 6피안타 4탈삼진 2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동성고도 충주성심학교와의 대결에서 12-1로 5회 콜드게임승을 가져갔다. 동성고의 광역리그 전적은 2승 1패다.

효천고는 대전고에 0-7로 완봉패를 당하면서 1승2패가 됐고, 천안북일고를 상대한 진흥고는 0-8으로 7회 콜드패를 기록하며 2승1패가 됐다.

한편 3일 청주구장과 군산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광주일고-북일고, 진흥고-세광고, 동성고-대전고, 화순고-공주고의 경기는 우천으로 순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페트라 크비토바(체코)가 2일(현지시간) 윈블던테니스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크비토바 윈블던 새 여왕

페트라 크비토바(8위·체코)가 윈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1460만파운드) 여자단식 정상에 오르는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크비토바는 2일(현지시간) 영국 윈블던의 올림피아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마리아 샤라포바(6위·러시아)를 2-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10만 파운드(약 18억8000만원)다.

지난해 이 대회 4강 진출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던 크비토바는 왼손잡이 선수로는 1990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이후 21년 만에 윈블던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크비토바는 왼손잡이의 장점을 이용해 구석구석을 찌르는 샷으로 샤라포바를 코트 좌우로 많이 흔들면서 경기를 주도했다. 2세트 게임스코어 5-4로 앞선 자신의 서브게임에서는 40-0에서 통렬한 서브에이스를 꽂아 승리를 확정 지었다. /연합뉴스

## 남자 배구 월드컵 본선 잔류

프랑스에 0-3 ... 13위 유지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2012년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에서도 예선을 치를 필요 없이 본선부터 뛰게 됐다.

박기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블라자에서 열린 대회 대륙간 라운드 D조 마지막 경기에서 프랑스에 0-3(20-25 18-25

22-25)으로 졌다.

승점 10점(3승9패)에 머문 한국은 프랑스(승점 11점)에 밀려 D조 최하위로 처졌지만 본선 16개국 중 13위에 올라 내년 시즌에도 본선에 잔류하게 됐다.

월드리그 본선에서는 가장 낮은 승점을 쌓은 두 팀이 예선으로 떨어진 다.

한국은 홈에서 프랑스와 쿠바 등을

꺾어 최소 14위를 확보해 놓았지만 국제배구연맹(FIVB)이 15위로 처진 일본에 내년 본선 자동 진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FIVB의 원칙 없는 행정 탓에 승점 9점을 쌓은 C조의 포르투갈은 14위를 차지하고도 예선부터 치르게 됐다.

한국은 서브 리시브 난조로 조직력이 무너져 초반 두 세트를 무기력하게 내줬다.

3세트에서는 20-20까지 시소게임을 벌였지만 막판에 연속으로 서브에이스를 허용해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